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새벽기도,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를 모아 놓은 시집(詩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찬양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부쳐 만든 찬양 곡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비록 시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그 안에는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때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향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맨 처음 1편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풍성한 물가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악한 일에 꾀를 내며 죄인의 길을 걸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휘청대는 것입니다. 결국에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으며 복 있는 사람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마치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지금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통함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의미의 형통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7-8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조차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렘 2:27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있는 나무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무 생명도 없는 돌을 향해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우매한 일들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